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최근 국내외 기업들이 앞다퉈 기업 내 ESG위원회, ESG 전담팀 등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은 'ESG가 기업 가치의 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ESG 정보 공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기업들은 더 이상 기업의 성과를 수치로 표현한 실적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ESG 경영이란?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¹⁾을 뜻한다. 기업의 환경 관련 활동은 친환경 제품·소재 개발,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및 탄소 배출 저감 노력 등이 있다. 사회 부문은 산업안전, 인적자원 관리 등이 포함되며, 지배구조의 경우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 감사 제도 등이 포함된다.²⁾

□ 기업들은 왜 ESG 경영에 뛰어 들고 있는가?

ESG의 개념은 20년 전부터 도입되었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를 꼽고 있으며,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봉쇄 조치 등으로 소비가 급감했다.³⁾ 이에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방지하고, 사회 이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ESG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착한 기업'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성과만을 기대하던 기존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다. 기업은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직면하고 있다. 고객은 안전한 제품을 요구하고, 정부는 공정한 거래를 요구하며, 지역사회는 환경친화적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문제를 야기한 기업이 책임경영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길 바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위 세 가지 부문 중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을 많이 하는 환경 부문, 그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부문에 집중할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커피 전문점들은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국내 편의점들은 종이 빨대를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로 교체

1) AhnLab, 2021, 너도나도 ESG경영, 왜 중요한가?

2) GS칼텍스, 2020, 우리는 왜 ESG에 주목해야 할까?

3) LG전자 소셜매거진, 2021, 왜 ESG? AtoZ까지! 쉽게 알아보는 ESG

했다. 일부 생수 브랜드는 비닐 라벨을 없애는 등 분야를 막론하고 기업들이 친환경 경영에 나서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

이밖에도 기업들은 RE100 가입 등 청정한 에너지 사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하고 있다. 탄소중립 선언이 그 예이다. 탄소중립이란 개인이나 기업 등이 배출한 만큼의 탄소를 다시 흡수하여 실질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가담하고 있다. 기업들은 주로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일부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 직원, 고객 나아가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업'으로 비춰지길 바라는 의도에서 진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재생에너지 활용 자체가 이득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는 비용효율적인 에너지원이며, 미래 가격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⁴⁾

* 자산의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

(1) 기술 기업(Tech Giants)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보고서에 의하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은 규모가 매우 크고, 어떤 부문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운영비에서 전력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⁵⁾ 2030년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전력 소비가 전체 전력 소비의 20%를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⁶⁾ 이에 따라 기술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여 탄소 배출을 감축하여 기업 운영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하고자 한다.

구글은 2010년 기술 기업 최초로 PPA를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2015년 RE100에 가입하였으며, 구글의 자체 보고서에 의하면 구글은 2017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4년 연속 100% 재생에너지 달성에 성공했다. 또한 50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용량은 5.5GW에 달한다. 구글은 100% 재생에너지 달성과 함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등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 데이터센터 효율화를 시행하여 동일한 전력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7배 많은 컴퓨팅 전력을 제공하고 있다. 2030년 구글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1년 365일 탈탄소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⁸⁾

4) IEEFA, 2020, Tech Giant's Investments in Renewable Power Purchase Agreements Lead the Way

5) IEEFA, 2020, Tech Giant's Investments in Renewable Power Purchase Agreements Lead the Way

6) Anders S. G. Andrae and Tomas Edler, 2015, On Global Electricity Usage of communication Technology: Trends to 2030

7) Power Technology, 2021, US tech giants to lead renewable energy business in the next five to ten years: Poll

8) Google, 2020, Environmental Report

또한 구글은 대륙 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100% 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였고, 벨기에 데이터센터의 경우 구글의 최초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을 일부 공급 받았다. 영토가 좁은 싱가포르에서는 공공 주택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을 통해 청정한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했다.⁹⁾

애플은 2016년 RE100에 가입하였으며, 2018년 이후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오고 있다.¹⁰⁾ 또한 애플은 IPCC 목표 보다 20년 앞당긴 시점까지 탄소발자국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110개 협력사에도 애플 제품 생산에 탈탄소를 요구하고 있다. 애플의 협력사들은 ‘청정에너지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¹¹⁾

2020년 애플은 ‘환경진보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75% 감축하기 위한 계획과 나머지 25%를 위한 혁신적 탄소 감축 솔루션 개발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5개 부문(저탄소 제품 디자인,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직접배출 감축, 탄소 제거)을 기준으로 10개년 기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저탄소 제품 디자인을 위해 애플은 저탄소·재활용 재료를 이용해 상품을 생산하고,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9년 배포된 모든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는 재활용품으로 생산되었으며, 같은 해 애플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과 재활용 혁신으로 탄소발자국을 430만 Mt을 감축하였다.

애플은 지속적으로 애플의 시설과 공급망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애플의 파트너십을 통해 맺어진 미-중 그린펀드 협약은 애플 협력업체를 위한 가속화된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2019년 ‘애플 협력사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설은 92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92개 시설은 연간 77.9만 Mt의 탄소를 감축하였다.

애플은 전 세계 44개 국가에 천여 개의 사무실, 매장, 데이터센터, 유통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위 시설 운영에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의존하기 보다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선호하고 있다. 현재 애플은 스칸디나비아에 세계적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설립과 함께 필리핀과 태국 등 소외 지역에서도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¹²⁾

온라인 쇼핑몰 기업 아마존은 미국 내 가장 큰 재생에너지 구매 기업이다. 아마존의

9) Google Cloud, 2021, Four consecutive years of 100% renewable energy-and what's next

10) RE100, 2020, RE100 Annual Report 2020

11) RE100, 2021, Apple's renewable energy journey

12) Apple, 2020, Environmental Progress Report 2020

CEO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을 2040년까지 탄소중립 기업으로 만들 것을 선언하였으며,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아마존은 채무, 배송, 전력, 포장, 기기 5개 부문에 걸쳐 탄소발자국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아마존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 아마존 전력 소비 중 2,400만MWh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232개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만MW에 달한다.¹³⁾

페이스북은 2011년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선언하였고, 2020년 이를 달성하였다. '2020 페이스북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8GW 규모의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탄소 배출을 2017년 대비 94% 감축하였고, 탄소 제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넷제로를 달성했다. 또한 페이스북이 설립한 '기후과학정보센터'는 공신력 있는 최신 기후 과학 정보 제공 허브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페이스북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사무실과 기타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진행했다. 직원들이 자택에서 사용한 전력과 동일한 양의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였다.¹⁴⁾

(2) 그 밖의 글로벌 기업들

지금까지 전 세계 금융기업들은 석탄화력 등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에 높은 비중의 투자를 해왔다. 이에 투자자 및 환경 단체들이 비난이 이어지자 금융권에서도 대대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IEEFA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대형 은행 10곳 중 9곳이 기업 운영에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선언하였고, 이중 3곳은 이미 목표를 달성하였다.¹⁵⁾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경우, 탄소 배출이 높은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투자자와 환경단체의 비난이 이어지자 2050년까지 자사에서 저탄소 배출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공급망의 넷제로 달성을 선언했다. 또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23년까지 공급망에서의 넷제로 달성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의 넷제로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2019년 탄소중립을 달성했다. 내부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바이오에너지, 재생에너지, 청정한 수소, 자연친화 솔루션, 폐기물 에너지, 친환경 농업기술, 탄소포집·저장 등 저탄소 배출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¹⁶⁾ 이에 더해 2021년 4월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넷제로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친환경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지속가능 부문의 자금 지원은 1.5조 달러로 확대되었다.¹⁷⁾

글로벌 금융 서비스업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자사의 기업 활동에서 데이터센터 및

13) Amazon 홈페이지, 2021, Sustainable Operation-Renewable Energy

14) Facebook, 2021, 2020 Sustainability Report

15) IEEFA, 2020, Tech Giant's Investments in Renewable Power Purchase Agreements Lead the Way

16) Edie, 2021, Bank of America targets net-zero financed emissions and supply chains by 2050

17) Renewables Now, 2021, Bank of America commits USD 1.5tr to sustainable financing

사무실 운영, 직원 출장, 직접 우편 마케팅 활동 등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배적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자체적 평가에 대한 부문 별 탄소 감축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2018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탄소중립 기업으로 거듭났으며, 운영 과정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했다. 이 밖에도 2011년 대비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에너지 이용을 2025년까지 3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29% 감축을 달성하였다. 직접 우편 마케팅에 사용되는 종이는 2025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된 산림을 통해 생산된 종이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88% 달성하였다.

2021년 3월 스타벅스는 2030년 ‘그린 커피’를 탄소중립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목표는 스타벅스의 ‘자원 친화적(resource positive)’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적 목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¹⁸⁾ 스타벅스는 2015년부터 미국, 캐나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9천여 개 매장을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내 다양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매장 하나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매장 운영에 쓰일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2022년까지 미국 내 로스팅과 음료 제조의 전력 소비의 50%를 버지니아주의 태양광발전 단지와 체결한 스타벅스 최초의 공급망 가상전력구매계약(Virtual PPA)*을 통해 상쇄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벅스는 약 970만 달러를 뉴욕의 23개 신규 지역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스타벅스 매장 및 지역 내 이용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상전력구매계약과 가상저장계약(VSA)을 체결하여 550개 매장에 태양광과 유틸리티급 배터리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하고, 각 ESS를 온라인에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을 조정하는 방식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도 2015년 RE100에 가입하였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야심한 탄소 제로 전략’을 내세워 목표 시점 보다 5년 앞당겨진 2020년 전 세계 모든 사업장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데 성공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전력 그리드에서 끌어온 전력(86%), 사업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1%) 및 열병합 발전시설(13%)로 생산된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PPA와 직접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¹⁹⁾

□ 한국의 현황 및 시사점

구글과 애플과 같이 전 세계에 협력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들은 이들의 협력사에도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협력업체들에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14일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도입하면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riff)를 통해 유럽연합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중

18) CNBC, 2021, Starbucks sets goal of making tis green coffee carbon neutral by 2030

19) Astra Zeneca 홈페이지, 2020, Ambition Zero Carbon progress: Accelerated delivery of our renewable energy sourcing targets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국제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노력 등 ESG 경영 강화는 불가피하다.

한국의 기업들도 ESG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및 주요 공사 등은 ESG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국내 4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또한 ESG 경영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은 2050년까지 그룹 운영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 방침이며, 하나금융도 '2050년까지 그룹 사업장 탄소배출 제로,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로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²⁰⁾

2020년 11월 SK그룹(8개사)을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도 RE100 가입을 선언하고 있다. 한화솔루션(한화큐셀),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한국수자원공사, LS전선까지 다양한 부문의 기업들이 RE100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국내 가입 기업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최근 발표한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최소 요구 로드맵인 2050년에서 달성 시점을 10년 앞당겨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향후 온실가스 및 전력 소비량을 관리할 계획이며, 신기술을 도입하여 데이터센터 효율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전력 수요량을 3.5% 이상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을 도입할 계획이며, 태양광 자가발전 시설 발전용량을 현재 150kW에서 650kW로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략 조달 방안도 구성하였다.²¹⁾

현대자동차그룹도 RE100에 가입하여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내외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을 검토 중이며, PPA와 한국전력을 통한 '녹색 프리미엄*' 전력 구매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아산공장에 지붕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연간 1.3만 kWh를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울산공장 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1.25만 kWh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차 생산 공장을 돌리기에 불충분한 규모이다.²²⁾

* 한국전력공사에 추가 요금(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해당 금액만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는 제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의 미비로 RE100 참여를 보류하고 있는 국내기업도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8년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사업장에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하고, 2020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국내 달성 시점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RE100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인증 제도의 역

20) 에너지경제, 2021, "ESG, 불확실한 경영환경 대비하는 백신"...4대 금융지주, ESG 격차 벌린다

21) 이투데이, 2021, SK(주) "RE100 2040년까지 100% 달성"

22) 이코노미스트, 2021, "자동차 생산에 재생에너지 쓰겠다" 현대차그룹 RE100 선언

사가 길지 않아 실행 리스크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100개사 중 25개 기업만이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 연도를 특정했고, 이들 기업의 평균 목표 연도는 2048년이다. 전 세계 RE100 가입 기업 300 여 곳의 평균 이행 연도는 2028년으로 한국은 이들과 비교하여 약 20년 정도 늦어지는 셈이다.²³⁾

2020년 발간된 RE100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RE100 회원사들이 꼽은 재생에너지 수급이 가장 어려운 10개국 중 하나로 꼽혔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들이 공급 받을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규제적 장벽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는 전체 전력 생산의 약 8% 수준으로 유럽 주요국(영국 40.5%, 독일 39.9%) 대비 낮은 수준이다.²⁴⁾ 또한 한국은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화력발전과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제성 부분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부문을 막론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RE100 확대를 위한 지원과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한국형 RE100(K-RE100) 이행을 위해 녹색 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 제3자 전력공급계약(PPA), 지분 참여 등 5가지 이행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위 5개 이행수단 중 각자의 경영 환경에 따라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적용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민간 차원에서도 RE100 확대를 위한 지원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RE100 참여 기업에 금리우대 및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덴마크 State of Green이 공동개최한 ‘탄소중립을 향한 한국과 덴마크의 과제 및 노력’ 웨비나에 참석한 진우삼 한국RE100위원장은 한국이 해상풍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공급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하며, 오는 10월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수요 기업을 매칭해주는 행사를 기획중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나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탄소중립 추진 관련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23) 그린피스, 2021, 10대 그룹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24) 한국경제, 2021, 삼성전자가 아직 RE100에 참여 못 한 이유